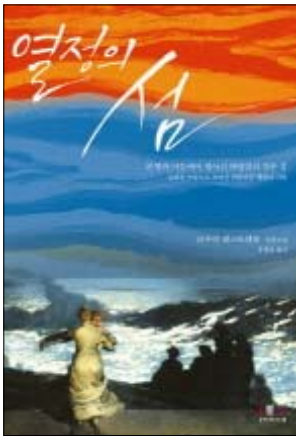


신간소개

■ 열정의 섬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원제: La Isla de la Pasión (1989)

라우라 레스트레포 (지은이) |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뿔(웅진)

출간일: 2009-07-30

ISBN(13): 9788901098593

반양장본 | 370쪽 | 210*146mm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극찬한,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대표작가 라우라 레스트레포 (Laura Restrepo)의 장편소설. 20세기 초 멕시코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둔 소설로,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클리퍼튼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던 중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멕시코 육군대위 아르노와 아내, 열한 명의 병사들과 가족의 혹독하고도 아름다운 생존의 기록을 담았다.

작가 레스트레포는 역사적 사실을 취재한 뒤 작중 인물들의 환상과 현실, 꿈과 고통을 교차시켰다. 황량한 무인도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인간 군상과 공동체에 엄습하는 고독, 불안, 증오와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명예욕과 열정이 불러 온 온갖 수난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역설하는 작품이다.

■ 저개발의 기억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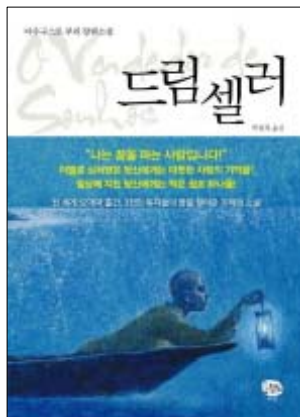
원제: Memorias del subdesarrollo (1965)
에드문도 데스노에스 (지은이) | 정승희 (옮긴이)
출판사: 수르
출간일: 2009-07-01
ISBN(13): 9788996262008
반양장본 | 196쪽 | 210*148mm (A5)

1965년 쿠바의 아바나에서 첫 출간된 에드문도 데스노에스(Edmundo Desnoes)의 소설로, 1968년 토마스 구티에레스 알레아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 제작하여 널리 알려졌다. 1959년의 쿠바 혁명, 뒤이은 쿠바 미사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의 시선을 통해 혁명을 겪는 쿠바 사회의 일면을 드러내며, 사회적 변혁 속에 놓인 개인의 주관성의 문제를 탐색한다.

소설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1960년대 초반의 쿠바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 때문에 쿠바의 많은 부르주아 상류층들은 나라를 떠났고, 익명의 주인공 역시 부모와 아내를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그 뒤 쿠바에 혼자 남아 자신의 상념과 주변에 대한 관찰을 일기로 남기기 시작한다.

이론적으로는 혁명에 동조하지만 편안한 부르주아 생활에 이미 익숙한 그의 몸과 의식은 쉽사리 혁명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쿠바 혁명 초창기의 삶 속에서 혁명에도, 반혁명에도 속하지 못하는 한 부르주아 지식인의 내적인 갈등을 통해 혁명의 진통을 겪는 쿠바 사회 단면을 엿본다.

■ 드림셀러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원제: O Vendedor de Sonhos (2008)

아우구스토 쿠리 (지은이) | 박원복 (옮긴이)

출판사: 시작

출간일: 2009-06-26

ISBN(13): 9788901097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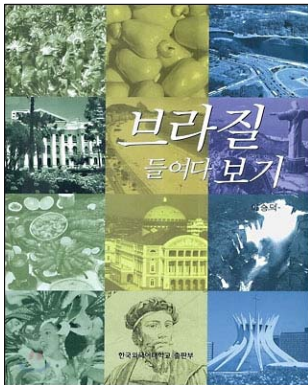
반양장본 | 336쪽 | 202*144mm

20년 이상 마음을 공부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우구스토 쿠리(Augusto Cury)의 장편소설. 소설은 이름이나 학벌, 배경 따위가 알려지지 않은, 일명 '꿈을 파는 사람'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20층짜리 건물에서 한 남자가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 그는 사회학자이자 대학교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다. 그 때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한 물골의 남자가 다가온다. '드림셀러', 자신을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밝힌 남자는 자살 시도자에게 함께 꿈을 팔러 다니자는 제안을 한다. 모든 이들이 열망하지만, 실제로는 사고팔 수 없는 희망이라는 꿈을. 그리고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자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 방랑하며 사람들에게 꿈을 파는 매혹적인 꿈과 희망의 여정에 동참한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소설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고 통찰력 있게 꼬집는다. 나날이 늘어가는 사회 각계각층의 추종자들과 함께 현대사회의 병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꿈을 파는 남자는 그 병폐를 진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다.

■ 브라질 들여다보기



이미지 출처: Yes24

이승덕 (지은이)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간일: 20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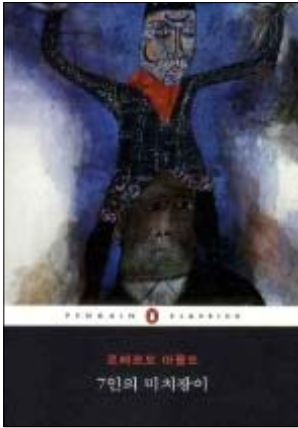
ISBN(13): 9788974644123

416쪽 | 248*176mm (B18)

이 책은 1959년 우리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브라질 관련 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브라질을 소개한 책들은 주로 외국의 글을 번역한 것이 다수였고, 내용도 정치나 경제 또는 사회학 등으로 전문화된 서적들이었다.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브라질의 관계는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과 같은 정치영역에서부터 경제와 문화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확대에 따라 브라질을 폭넓은 개괄하는 정보성 서적에 대한 필요도 증가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이승덕 교수가 2006년 출판한 이 책은 2009년 8월에 증보되어 출판되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간추린 브라질 역사를 비롯하여 자연환경, 민족, 언어,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음식문화, 풍속과 생활양식, 예술, 종교, 문학 그리고 브라질 문화의 3대 요소인 축구, 커피, 삼바와 카니발 등 총 15개의 주제로 나누어 브라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경제 및 교역 등에 대한 최신의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생생한 화보를 주제별로 덧붙임으로써 현재의 브라질을 다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 7인의 미치광이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원제: Los siete locos (1929)

로베르토 아를트 (지은이) | 엄지영 (옮긴이)

출판사: 펭귄클래식코리아(웅진)

출간일: 2008-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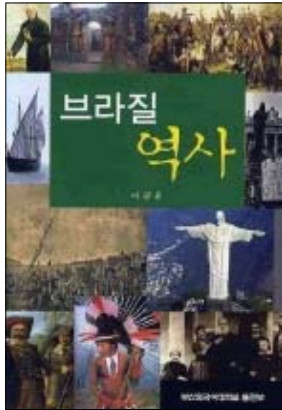
ISBN(13): 9788901089843

반양장본 | 424쪽 | 203*133mm

이 소설은 아르헨티나 현대문학의 선구자 로베르토 아를트(Roberto Arlt)의 대표작으로, 국내 첫 완역이다.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정체성의 뿌리를 농촌에서 찾으려고 했을 때, 아를트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와 도시인의 삶을 기록하고 했다. 보르헤스가 오캄포 자매와 함께 댄디처럼 머리를 빗어 넘기고 변화한 플로리다 거리를 활보할 때,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를트는 우중충한 보에도 거리에서 가난한 도시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했다. 그래서 아를트의 작품은 언제나 투박한 서민의 맛이 있고, 도시 빈민의 삶이 메아리친다.

이 소설은 주인공 에르도사인이 자살하기 전 사흘 동안 이 소설의 화자이자 해설자인 ‘나’에게 전한 이야기이다. 몽상적인 발명가인 에르도사인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허덕인다. 조금씩 빼돌린 회사 공금은 어느새 엄청나게 불어나 그를 짓누른다. 그러다가 사회혁명을 계획하고 있는 점성술사를 만나 그의 계획에 동참한다. 이처럼 설탕 회사에 다니는 몽상적인 발명가와 사회혁명을 꿈꾸는 점성술사, 황금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탐험가, 사는 게 늘 심심한 기동서방, 도박에 빠진 광신도 약제사, 유산으로 놀고 먹는 건달 등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 브라질 역사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이광윤 (지은이)

출판사: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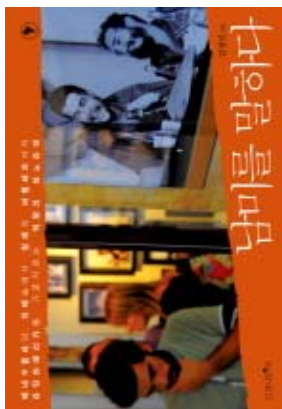
출간일: 2009-06-30

ISBN(13) : 9788983123176

반양장본 | 360쪽 | 223*152mm (A5신)

브라질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역사 교재이다. 브라질 발견 이전의 역사부터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의 역사, 그리고 근대화 과정과 군부 독재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브라질이 걸어온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 남미를 말하다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김영길 (지은이)

출판사: 프레시안북

출간일: 2009-06-25

ISBN(13) : 9788901097640

반양장본 | 336쪽 | 223*152mm (A5신)

이 책은 외부인의 눈이 아니라 현지 민중의 시각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소식을 《프레시안》에 연재한 ‘김영길의 남미 리포트’를 다듬은 책이다. 현재 《프레시안》 연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되었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담아낸 김영길 가자의 글을 지면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